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 of Perceiver's Fashion Involvement on Clothing Color Perception and Preferences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3. 2. 21.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r's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color, and background of object person on image perceptions of clothing, and to examine how clothing color preference vary according to perceiver's fashion involvement. Subjects were 273 college wome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T-shirt was changed into 11 colors by using the CAD system. Five factors were deriv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s of image perception. These were individuality, elegance, femininity, activity, and neatness. Perceiver's fashion involvement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individuality. Clothing color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5 image dimensions. White and beige were evaluated neat image. Neatness factor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fashion involvement and clothing color. The high involvement group evaluated white and beige shirt more neatly, and orange and yellow less neatly than the low involvement group. Individuality and elegance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fashion involvement and background of object person. The high involvement group liked red, violet, and black shirt more than the low involvement. Refined and becomingness image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clothing color preference in both high and low involvement groups.

Key words: perceiver's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color, background, color preference, image perception; 지각자의 유행관여, 의복색, 배경, 색선호, 이미지 지각

I. 서 론

의복의 시각적 지각은 선, 형태, 소재,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달리 표현되며,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배경,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해진다. 즉 착용자의 의복을 지각하는 내용은 지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지각의 수준과 정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각자 변인에는 지각자의 성별, 연령, 직업, 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기억, 지식)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 200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복 지각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김광경, 강혜원, 1992; 이미연, 이명희, 2000; Delong et al., 1983), 지각자 변인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각자의 태도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한편 오늘날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유행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복유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행주기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의복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유행혁신자, 유행선도자, 추종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행선도자와 추종자들이 의복을 지각하고 평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이 지각자의 유행관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의복의 속성 중에서 색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며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의복 이미지의 시각적 지각에서 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단서 중에서 색의 효과를 주 연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의복스타일은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티셔츠 차림의 캐주얼 복장을 택하였으며, 티셔츠 색을 11가지로 변화시켰다. 또한 지각대상자가 속해있는 배경이 의복색의 지각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배경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와 지각대상자의 의복색 및 배경이 의복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를 조사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이미지 지각의 차원을 조사한다.

둘째, 지각자의 유행관여도, 지각대상자의 의복색 및 배경에 따른 의복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넷째, 지각자의 유행관여도별로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유행관여

유행관여는 의복구매시 소비자가 유행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중요성을 뜻한다. Tigert, Ring과 King (1976)은 유행관여에 유행인식, 유행에 관한 지식, 유행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행혁신성의 5가지 측면을 포함시켰다. 유행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새로운 유행상품의 채택이 빠르며, 유행관여는 새로운 유행채택의 기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Sproles & Burns, 1994).

유행은 그 관여 정도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로 나눌 수 있다. 박혜원과 임숙자(1992)의 연구에서 유행 고관여 집단은 유행 저관여 집단보다 상표이미지를 더 차별적으로 지각하고, 유행 저관여 집단은 품질, 가격, 디자인, 사회성, 판매촉진 활동, 체형과의 적합

성 등의 속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은정(1991)의 연구에서 유행 고관여 집단은 의복선택 시 자아이미지의 고양, 디자인, 품질 등의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유행 고관여자는 유행에 대한 인식, 흥미, 지식이 높아 유행혁신자, 유행선도자, 초기채택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행혁신자는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초기에 착용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처음 보여주는 시각적 전달자로서 의복규범에 무관심하고 타인의 인정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복을 연출하려는 경향이 있다(최선행, 이은영, 1987). 또 유행혁신자는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하였으며, 패션잡지를 자주 보고, 외모나 미용에 관심이 높았다(권순기, 1990). 유행선도자는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초기에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유행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집단으로 혁신자, 의견선도자, 혁신적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행선도자는 의복구입시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제품을 원하며, 개성과 브랜드추구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 또 의복 스타일은 세련되고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정장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유행선도 집단은 유행추종 집단에 비하여 사회계층이 높았으며(이연희, 1996; 이남순, 1989), 용돈과 의복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유행혁신성이 높았다(김경희, 김미숙, 1997).

유행과 성격과의 관련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며 경직성이 높을수록 유행에 관심이 높았으며(강혜원, 1974),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보수주의자보다 유행관여가 낮았다(김효경, 이명희, 1992). 또한 사교성, 변화지향태도(Behing, 1992)와 감성추구(Workman & Johnson, 1993)가 높고,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이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았고,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새로운 유행형 의복을 선호하였다(이금실, 강혜원, 1978).

2. 의복색 이미지

색은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므로 생리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또한 색채감정은 개성, 환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되며, 환경과 사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연상적인 감정이 일어난다(최영훈, 1987). 개인마다 색채에 대한 연상이 다를 수 있으나 색채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다수 사람들이 특정

색에 대해 갖는 공통적인 감각으로 색채연상이나 색채상징으로부터 형성되며,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 색채의 이미지로 사용된다. 색채이미지는 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구체적 이미지와 무형적인 대상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로 구분되는데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는 서로 관련되어 나타난다(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 색의 이미지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현, 조공호(1995)는 빨강색 수트 착용자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상, 파랑색 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 노랑색은 깔끔하고 밝은 인상, 검정색 착용자는 깔끔하지 못하고 어두운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 파랑과 보라는 성숙한 이미지로, 노랑은 어려보이는 것으로, 보라색은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 초록은 수수한 이미지, 빨강은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가 엘레강스, 로맨틱, 쉬크한 이미지(김은경, 김영인, 1996), 청색 복식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캐주얼한, 활동적인 이미지(강병희, 1996), 녹색은 자연 보호, 젊음, 발랄함이라고 하였다(추선형, 김영인, 1997). 또한 직물연구에서 빨강은 딱딱하고 남성적인 이미지, 파랑은 가볍고 시원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박금옥, 1996).

김광경, 강혜원(1992)의 연구에서 의복 색은 능력이나 활동성 요인의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평가 요인에만 영향을 주어 검색 수트는 더욱 딱딱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전문직 관찰자는 사무직보다 검색 수트를 더 능력있는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은 컴퓨터에 인물의 모습을 입력하고 의복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자극물을 제작하여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평가와 조화의 측면에서는 무채색이 긍정적이었고 활동 차원에서는 유채색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는 의복색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베이지색 상하의는 수트가 캐주얼한 복장보다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빨강과 베이지색 배색은 캐주얼한 복장이 수트보다 더 매력있게 지각되었다.

3. 배경에 따른 의복지각

의복은 착용자가 어떤 배경 맥락(context)에서 그 의복을 입었는가에 따라 관찰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가 다르게 나타난다.

Rees, Williams와 Giles(197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면접시험의 경우 넥타이를 맨 모습이 더 지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으나 캠퍼스의 맥락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경우가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다. 강혜원,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한복 및 양복 착용자에 대한 평가를 학교와 직장 상황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여자 착용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한복 착용자가 학교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는 운동권이나 의식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면접시의 캐주얼 차림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주말 외출시 정장차림은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주소현, 이경희(1999a)의 연구에서는 캐주얼한 의복은 자연물의 배경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모던 이미지의 의복은 인공건축물의 배경이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모던한 의복은 인공물의 배경에서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냈고, 캐주얼한 의복은 전원적인 자연물의 배경에서 부드러운 이미지, 인공물의 배경에서는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냈다(주소현, 이경희, 1999b).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는 같은 의복이라도 배경에 따라 능력 요인이 다르게 평가되어 공원을 배경으로 할 때 보다 학교 배경이 더 능력있게 평가되었다. 또한 수트와 같은 포말한 복장은 공원보다 학교에서 더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캐주얼 복장은 학교보다 공원 배경에서 더 품위있게 지각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자연물, 인공물, 학교, 공원 등의 배경은 착용자의 의복과 상호 작용하여 전달되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이미지 지각 연구에서 배경을 달리하여 의복과 함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III. 연구방법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는 의복 색과 같은 착용자의 의복 특성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지각 대상자 이외에 지각자의 특성,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이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의복 색, 배경, 지각자의 유행관여도를 연구변인으로 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으로서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11(지각자의 유행관여도×의복색), 2×2(지각자의 유행관여도×배경), 2×11(배경×의복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3개 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요인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는 피험자간 설계이므로 1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 피험자수가 제한되어 있어 유행관여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면 한 집단이 10명 미만일 수 있으므로 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독립변인을 2개 변인씩 사용하여, 3가지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티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티셔츠의 색을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은 타원형 윤곽의 얼굴로서 표준체형에 가까운 20대 여대생 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키는 164cm, 몸무게는 52kg이었다. 티셔츠는 짧은 소매의 라운드 넥크라인 스타일이었고 바지는 베이지 색의 긴 면바지였으며, 신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방법은 여성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찍은 후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복 색을 바꾸었다. 의복색의 평가에서 얼굴에 대한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자극물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셔츠의 색은 11가지로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진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색, 베이지 색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의복 색을 Munsell의 색 체계에서 보면 3R 4/14(빨강), 1YR 6/12(주황), 2Y 8.5/12(노랑), 3G 5/8(초록), 10B 5/10(파랑), 2PB 3.5/6.5(진남색), 1P 4/10.5(보라), N6(회색), 4YR 8.5/2(베이지 색)에 해당되었다(COS, 1997).

의복색이 결정된 모델의 모습은 연구변인의 배경에 맞추어 연회색 계단과 녹색의 나무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사용하여 2가지 배경 위에서 있는 모습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를 칼라 프린터를 사용하여 10×18cm의 크기로 출력하였으며, 배경(2)과 의복색(11)으로 변화를 준 총 22종류의 자극물을 사용하였

다. 배경 색으로 연회색과 나무의 녹색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사회생활에서 녹색이 자연의 색으로 야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이며, 연회색은 인공 건물에서 자주 보이는 색이므로 선택되었다.

2) 측정도구의 문항 선정

이미지 지각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이명희, 강승희, 1998; 주소현, 이경희, 1999a; Darmhost, 1990)에서 참조한 23개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항목과 1개의 선호도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이었다. 유행관여도는 선행연구(Tigert, Ring & King, 1976)에서 사용한 Likert 척도의 4문항을 택하였다. 의복색 선호도는 이미지 지각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11가지 티셔츠 색의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1명의 피험자가 1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22종류의 자극물 각각에 대하여 13명의 피험자가 반응하도록 배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결과 한 개의 자극물을 12~13명이 평가하게 되었고, 전체 피험자수는 273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9~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이원변량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색 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의복색 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3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개성적인-평범한, 돋보이는-돋보이지 않는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세련된-촌스러운, 고상한-천박한 등이 포함되어 품위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이라고 하

<표 1> 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요인 1. 개성	요인 부하량	요인 3. 여성성	요인 부하량
개성적인-평범한	.84	부드러운-딱딱한	.79
화려한-수수한	.83	따뜻한-차가운	.76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80	여성적인-남성적인	.64
돋보이는-돋보이지 않는	.76	귀여운-귀엽지 않은	.55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69	밝은-어두운	.55
발랄한-점잖은	.53	전체변량(%) = 9.33, 고유치 = 2.15	
전체변량(%) = 28.23, 고유치 = 6.49		요인 4. 활동성	요인 부하량
요인 2. 품위	요인 부하량	적극적-소극적	.71
세련된-촌스러운	.78	활동적-비활동적	.65
값비싼-값싼	.77	사교적-비사교적	.61
고상한-천박한	.63	전체변량(%) = 7.10, 고유치 = 1.63	
우아한-우아하지 않는	.56	요인 5. 단정성	요인 부하량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55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77
전체변량(%) = 15.37, 고유치 = 3.54		청순한-청순하지 않은	.69
		지성적인-비지성적인	.59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48
		전체변량(%)=4.58, 고유치=1.05	

α reliability : F. 1= .90, F. 2= .78, F. 3= .78, F. 4= .66, F. 5= .61

였고, 요인 4는 적극적-소극적, 활동적-비활동적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5는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청순한-청순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단정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8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4.61%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 각각 .90, .78, .78, .66, .61로서 신뢰도가 만족할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성과 여성성 요인의 도출은 홍병숙, 정미경(1993), 이경희(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품위, 활동성, 단정성 요인의 도출은 이주현, 조금호(1995), 이미연, 이명희(2000), Lee, Park과 Jeong(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유행관여도, 의복색 및 배경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티셔츠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와 지각대상자의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행관여도는 중앙치 3.25를 기준으로 중앙치 이상을 고관여 집단, 이하를 저관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의 유행관여도는 개성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유행 저관여자는 고관여자에 비하여 지각대상자의 개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의복색은 5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개성은 노랑과 보라색이 높았고 베이지색, 남색, 흰색, 회색, 검정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베이지색, 남색과 같은 채도가 낮은 색과 무채색의 셔츠는 평범한 이미지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품위 차원에서는 검정, 보라, 흰색 셔츠가 다른 색에 비해 품위가 높게 지각된 편이었고, 초록, 주황, 노랑은 품위가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즉 고채도의 선명한 색은 품위가 낮게 지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품위 차원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자극물의 복장이 셔츠 차림의 캐주얼한 복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성은 노랑과 주황이 높았고 남색, 검정, 회색이 낮았다. 즉 고채도의 난색은 여성성이 높고, 저채도의 어두운 색은 남성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활동성은 빨강, 주황색 셔츠가 매우 높았고 베이지색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에 회색, 흰색도 활동성이 낮은 편이었다. 단정성은 흰색과 베이지색이 높았고 노

<표 2> 지각자의 유행관여도 및 지각대상자의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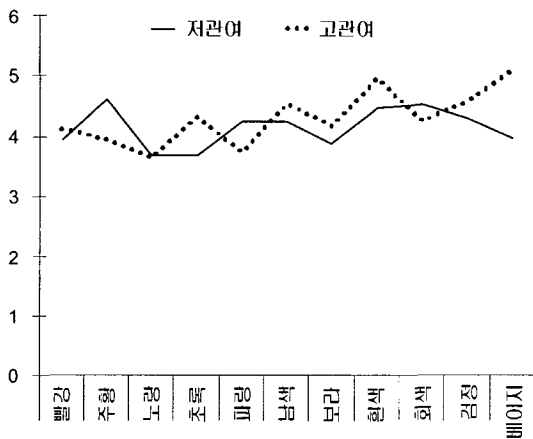
변량원		df	개성 F	품위 F	여성성 F	활동성 F	단정성 F
유행관여도(A)		1	5.70*	1.04	.83	.45	2.44
의복색(B)		10	7.63**	2.14*	18.13**	2.26*	3.03**
A×B		10	.48	1.09	1.24	.95	2.15*
오차		251					

변인	속성	N	M	M	M	M	M
유행	저관여	112	3.05	3.03	3.83	4.61	4.13
	고관여	161	3.33	3.15	3.87	4.54	4.31
의복색	빨강	25	3.53 abc	3.07 abcd	4.47 bc	5.11 a	4.06 bc
	주황	25	3.42 bc	2.81 cd	4.79 ab	5.01 ab	4.13 bc
	노랑	25	4.06 a	2.88 bcd	5.02 a	4.97 abc	3.65 c
	초록	25	3.15 cd	2.66 d	3.58 e	4.51 abcde	4.03 bc
	파랑	25	3.73 abc	2.90 bcd	3.60 e	4.85 abcd	3.99 bc
	남색	25	2.67 de	3.05 abcd	2.88 f	4.41 bcde	4.39 ab
	보라	25	3.98 ab	3.49 ab	3.76 e	4.43 bcde	4.05 bc
	흰색	25	2.67 de	3.40 abc	4.26 cd	4.35 cde	4.77 a
	회색	24	2.73 de	3.16 abcd	3.08 f	4.26 de	4.35 ab
	검정	25	2.83 de	3.57 a	3.02 f	4.36 cde	4.44 ab
베이지색	24	2.54 e	3.13 abcd	3.90 de	4.00 e	4.71 a	

*p<.05, **p<.01, a~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3> 단정성에 대한 유행관여도와 의복색에 따른 평균치

유행 \ 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베이지
저관여	3.94	4.61	3.66	3.66	4.23	4.23	3.88	4.48	4.53	4.31	3.97
고관여	4.12	3.94	3.64	4.32	3.73	4.54	4.17	4.97	4.25	4.58	5.09



<그림 1> 단정성에 대한 유행관여도와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량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고명도의 채도가 낮은 색의 셔츠는 채도가 높은 색보다 더 단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각 색의 이미지 특성을 종합해 보면 빨강과 주황색 셔츠는 활동적인 이미지, 노랑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았다. 초록과 파랑색은 품위가 낮았고, 남색과 회색은 여성성과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보라와 검정은 다른 색에 비해 품위가 높은 편이었고, 흰색과 베이지색은 단정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주현, 조공호(1995)의 연구에서는 빨강색보다 파랑색 슈트가 활동적인 인상을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빨강색 셔츠가 파랑색보다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아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빨강색은 정장의 경우보다 셔츠로 착용했을 때 활동적인 이미지

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보라색은 선행 연구(차미승, 1992)에서 성숙한 이미지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품위가 높은 이미지로 지각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검정색은 선행연구(이주현, 조궁호, 1995)에서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품위있는 색으로 지각되어 다소 다른 맥락을 나타냈다. 이것은 최근에 검정색 의복에 대한 착용도가 높아 검정색 티셔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김광경, 강혜원, 1992; 이명희, 2002)에서 진남색은 딱딱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색은 여성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므로 남색은 의복유형에 관계없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색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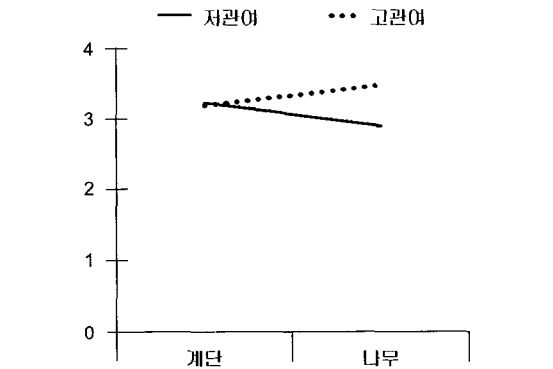
단정성은 유행관여도 및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유행 고관여자는 베이지색과 흰색을 가장 단정하게 지각하였고 저관여자에 비해서도 베이지색과 흰색을 더욱 단정하게 지각하였으며, 주황, 노랑, 파랑을 단정하지 않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유행에 관심이 높은 여성은 저채도의 색을 단정하게 보고 고채도의 색을 단정성이 낮게 평가함으로써 유행관여가 낮은 여성에 비해 의복색 지각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유행 고관여자가 의복에 대한 지식이 높아 의복색 평가가 뚜렷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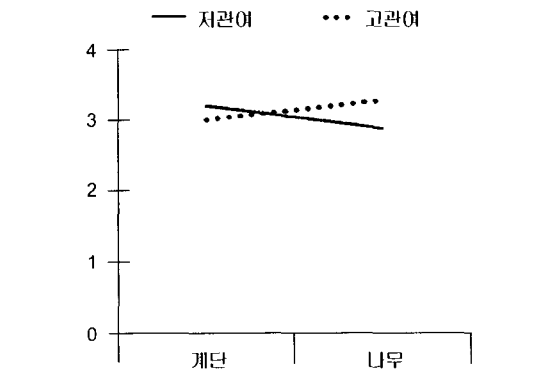
티셔츠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자의 유행관여도 및 지각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성은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회색 계단을 배경으로 할 때는 유행관여에 영향받지 않고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녹색 나무를 배경으로 한 지각대상자를 보았을 때는 유행 고관여자가 저관여자에 비해 개성을 더 높게 평

가하였다. 품위도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유행 저관여자는 계단보다 나무 배경을 품위가 낮게 지각하였으나 유행 고관여자는 계단보다 나무 배경을 더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대상자의 의복은 셔츠 차림의 캐주얼웨어이므로 나무와 같은 야외의 배경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따라서 유행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태도(Behing, 1992)가 의복 지각에도 적절히 반영되어 일반적인 회



<그림 2> 개성에 대한 유행관여도와 배경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3> 품위에 대한 유행관여도와 배경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표 4> 지각자의 유행관여도 및 지각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개성 F	품위 F	여성성 F	활동성 F	단정성 F
유행관여도(A)	1	3.88*	.72	.07	.32	2.36
배경(B)	1	.01	.00	.04	.88	.19
A×B	1	5.21*	6.18*	1.87	.27	.49

*p<.05

<표 5> 유행관여 집단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

유형 \ 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베이지
저관여	3.38	2.66	3.00	2.79	3.38	3.70	3.11	4.18	3.61	4.14	4.00
고관여	3.65	2.75	2.49	2.86	3.32	3.91	3.57	4.26	3.93	4.47	3.87
t	-2.28*	-.65	4.01**	-.58	.50	-1.85	-3.41**	-.83	-2.72**	-2.89**	1.01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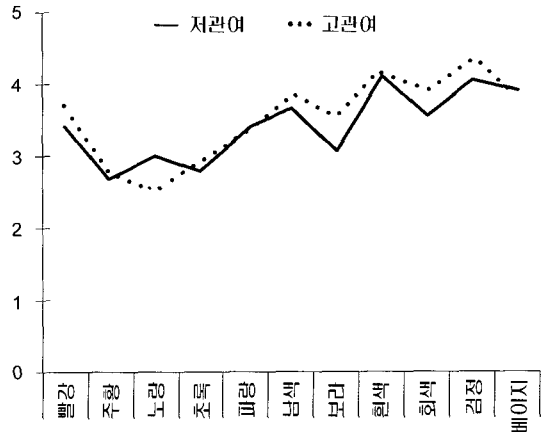
색 계단보다 야외 배경에서의 셔츠 차림에 대하여 개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

티셔츠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대상자의 배경 및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5개 요인 모두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것은 자극물의 복장이 짧은 소매의 티셔츠를 착용한 일반적인 복장이므로 어느 배경에서나 동일한 이미지로 지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그림 4>와 같다. 빨강, 노랑, 보라, 회색, 검정색 셔츠 선호도는 유행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 고관여 집단은 저관여 집단보다 빨강, 보라, 회색, 검정색 셔츠를 더 선호하였고 노랑색 셔츠를 선호하지 않았다. 즉 유행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품위있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보라색 셔츠를 선호하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주는 빨강과 함께, 회색, 검정과 같은 무채색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행 고관여 집단은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색과 침착한 이미지의 색을 동시에 선호함으로써 의복색 선호에 다양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두 집단의 색 선호도 순위를 비교하여 보면 유행 고관여 집단은 검정, 흰색, 회색의 순이었고 저관여 집단은 흰색, 검정, 베이지색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선호되고 있으나 유행 저관여 집단은 흰색, 베이지색과 같은 단정한 이미지의 의복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싫어하는 색은 유행 고관여 집단은 노랑, 주황의 순이었고 저관여 집단은 주황, 노랑의 순이었다. 이것은 노랑과 주황이 품위 차원이 낮게 평가된 색이므로 전체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나타난



<그림 4> 유행관여 집단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다른 이미지 지각 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유행 저관여자와 고저관여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시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되므로 독립변인의 상호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행 저관여 집단과 고관여 집단의 D-W 계수는 각각 1.641, 1.802였다. 이것은 임계치 1.28~2.35에 속하므로 만족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유행 저관여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세련된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눈에 띄는(-), 개성적인, 밝은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9.5%였다. 즉 유행 저관여자는 세련되고 어울리며,

<표 6> 선호 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문 항	유행 저관여 집단			유행 고관여 집단		
	beta	t	R ²	beta	t	R ²
세련된-촌스러운	.45	5.71**	R ² =.595 F=31.10**	.20	2.57**	R ² =.534 F=35.52**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33	4.13**		.27	4.17**	
개성적인-평범한	.28	3.50**		-	-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28	-3.29**		-	-	
돋보이는-돋보이지 않는	-	-		.30	4.25**	
밝은-어두운	.15	2.02*		-	-	
고상한-천박한	-	-		.24	3.85**	
사교적-비사교적	-	-		.13	2.13*	

*p<.05, **p<.01

개성적이며 밝은 이미지가 높을수록, 눈에 띄는 이미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여기서 개성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눈에 띄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유행 저관여자는 개성적인 이미지를 원하면서도 너무 눈에 띄는 셔츠색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 고관여자에게는 돋보이는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고상한, 세련된, 사교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3.4%였다. 따라서 셔츠 색이 돋보이고 잘 어울리며, 고상하고 세련되며, 사교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유행 고관여자의 색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행 저관여자는 개성적인 이미지, 유행 고관여자는 돋보이는 이미지가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두 집단 모두 타인과 유사하지 않은 모습이 선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돋보인다는 용어에는 “더 낮게 보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이희승, 1996) 유행 고관여자는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남보다 낮게 보이는 특성을 중요시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유행 저관여자와 고관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세련되며 어울리는 이미지가 선호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으나, 유행 고관여자는 돋보이는 이미지를 강하게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와 티셔츠 착용자의 의복색 및 배경이 의복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

복색 선호도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273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티셔츠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은 개성, 품위, 여성성, 활동성, 단정성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지각자의 유행관여도는 개성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주어 유행 저관여자는 고관여자에 비하여 지각대상자의 개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의복색은 5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성은 노랑과 보라색이 높았고 베이지, 남색, 흰색, 회색, 검정은 개성이 매우 낮았으며, 품위 요인에서는 검정, 보라, 흰색 셔츠가 품위가 높았고, 초록, 주황, 노랑은 품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여성성은 노랑과 주황이 높았고 남색, 검정, 회색이 낮았다. 활동성은 빨강, 주황색 셔츠가 매우 높았고 베이지색이 가장 낮았다. 단정성은 흰색과 베이지색이 높았고 노랑이 가장 낮았다.

셋째, 단정성 평가는 유행관여도 및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유행 고관여자는 저관여자에 비해 베이지색과 흰색을 더 단정하게 지각하였고, 주황, 노랑, 파랑을 단정하지 않게 지각하였다.

넷째, 지각자의 유행관여도 및 지각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차이를 이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개성과 품위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회색 계단보다 녹색 나무를 배경으로 한 지각대상자를 보았을 때 유행 고관여자가 저관여자에 비해 개성과 품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유행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태도가 의복 지각에 적절히 반영되어 평범한 회색 계단보다 야외 배경에

서의 셔츠 차림에 대하여 개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섯째,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른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에서 유행 고관여 집단은 저관여 집단보다 빨강, 보라, 회색, 검정색 셔츠를 더 선호하였고 노랑색 셔츠를 선호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선호되고 있으나 유행 저관여 집단은 고관여 집단에 비해 흰색, 베이지색과 같은 평범한 색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섯째,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조사한 결과, 유행 저관여자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세련된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눈에 띄는(-), 개성적인, 밝은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즉 유행 저관여자는 개성적인 이미지를 원하면서도 너무 눈에 띄는 셔츠 색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유행 고관여자에게는 돋보이는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고상한, 세련된, 사교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유행 저관여자와 고관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세련되며 어울리는 이미지가 선호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나, 유행 고관여자는 돋보이는 이미지를 더욱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명도의 저채도 색은 단정하게 보이며, 빨강, 주황과 같은 난색계통의 셔츠는 활동적인 이미지로, 보라와 검정은 품위있는 색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행 고관여자는 저관여자에 비해 검정색과 보라색 셔츠를 더 선호하였으며 의복 착용자의 배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유행관여도와 같은 지각자의 태도는 의복색 지각과 선호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티셔츠 색과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가 됨을 확인하였고, 이들 단서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실생활에서 티셔츠의 색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의복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즉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쉽게 착용하는 티셔츠라 할 지라도 티셔츠의 색을 통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정, 빨강, 베이지색 등의 티셔츠 착용자의 느낌이 두드러지게 다르게 전달되며 이러한 상징성은 배경이나 지각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생활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의복 색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관찰자 집단의 수가 적다는 점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출력한 지면을 통해 표현된 의복이 주는 느낌은 실생활의 의복이 전달하는 느낌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배경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배경 변화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시 된다. 또한 지각자의 성격,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며, 의복스타일을 포함하여 의복디자인 요소별로 자극물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의복의 시각적 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희. (1996). 청색이미지 고찰에 의한 복식디자인. *디자인학회지*, 18, 87-96.
-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논문*, 11, 349-376.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 권순기. (1990). 남성유행혁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스타일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경, 강혜원. (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 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I): Suit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1-20.
- 김경희, 김미숙. (1997). 유행선도력에 따른 여고생의 구매전 의사결정과정에서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487-501.
- 김은경, 김영인. (2000).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4(3), 373-384.
- 김효경, 이명희. (1992). 의류광고에 대한 평가, 유행몰입 및 사회적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31-45.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류은정. (1991).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금옥. (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원, 임숙자. (1992). 유행관여에 따른 여성 기성복 상품 이미지 포지셔닝 연구: 20대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4), 393-404.
-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3), 537-548.

- 이금실, 강혜원. (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 287-294.
- 이남순. (1989). *유행수용역할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미연, 이명희. (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시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넥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724-735.
- 이연희. (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희승 편. (1996).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78-89.
-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3(2), 196-207.
-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황색 이미지(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7), 970-981.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형, 이은영. (1987). 유행 선도자의 특성 연구, 유행 선도력, 사회적 성격, 의복 동조성, 유행 정보원사용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3), 15-24.
- 최영훈 편. (1987). *색채학개론*. 미진사.
- 추선형, 김영인. (1997). 녹색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 33-46.
- 홍병숙, 정미경. (1993). 여성 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COS: Color System. (1997). *한국유행색산업회*.
- Behing, D. U. (1992). Three and a half decades of fashion adoption research: What have we learned?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34-41.
-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r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327-336.
- Lee, Y., Park, Y., & Jeong, E. (2002). A study on human sensibility in design of men's suit. *Journal of the society of Clothing & Textiles*. 26(12), 1709-1715.
- Rees, D. W., Williams, L., & Giles, H. (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gy*, 5, 1-7.
- Sproles, G. B., & Burns, L. D. (1994). *Changing appearanc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Tigert, D. J., Ring, L. J., & King, C. W. (1976). Fashion in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46-52.
- Workman, J. E., & Johnson, K. K. P. (1993). Fashion opinion leadership, fashion innovativeness, and need for variety.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1(3), 60-64.